

# 미래환경연구포럼 창립총회

2013. 6. 3 (월)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완영 후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정소식



## 국회연구단체 ‘미래환경연구포럼’ 창립

이완영 국회환경노동위원, 대표의원에 선출  
권기태 환경기술인협회장, 환경산업분과장 맡아

민과 관, 산·학을 대표하는 환경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연구단체인 ‘미래환경연구포럼(이하 포럼)’이 발족돼 전국의 환경인들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지역구)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은 지난달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완영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하고 기후변화에너지분과(분과장 문길주), 물환경분과(분과장 윤주환), 자원순환분과(분과장 변상남), 환경복지분과(분과장 최학수), 자연생태분과(분과장 김현규), 환경산업기술분과(분과장 권기태) 등 6개 분과위원장은 선출했다.

포럼은 향후 환경복지·기후변화·환경산업육성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완영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포럼의 3대 비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환경산업기술분과 분과장으로 위촉된 권기태 한국환경기술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ICT와 환경을 접

목하는 신개념의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을 비롯,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장,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윤창순 서울대교수 등 국내 환경전문가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향후 · 환경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 환경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추진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내외 협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 국내외 전문가들의 교류 및 환경관련 창조인력의 발굴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